

섭리

수많은 영혼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며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믿는 자의 수를 크게 더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세상 끝 날에 만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

믿음을 더 깊게 해주는 만민의 책들

22년간 줄기차게 종교서적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는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비롯해 기독교계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영혼육"에 이르기까지 신앙 지침서들.

이스라엘 선교 '777일 대장정'의 비화

'아직도 주 예수를 영접지 않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라'는 이스라엘 선교의 사명을 받아 마침내 2009년 이스라엘 연합성회에 성공한 777일의 선교 발자취.

만민교회, 10년주기 3차례 은혜 대폭발

27년 전 마흔 살 전도사가 성도 13명으로 개척한 만민중앙교회는 27년 만에 전 세계 69개국 지교회를 둔 글로벌 미션그룹으로 발전하다. 10년마다 은혜 충만한 대도약을 이루는 교회의 역사.

만민뉴스

MANMIN NEWS

제400호 2009년 10월 11일 (창립 27주년 특집호)
대표전화 02-818-7000
news.manmin.or.kr

이스라엘에 권능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이재록 목사 초청 '2009 이스라엘 연합성회' 놀라운 간증 속출



36개 국에서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공연팀과 함께 찬양하며 환호하고 있다

9월 6-7일,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크리스털 포럼 주최로 열린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성회' 후에도 치료와 응답의 간증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수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던 이스라엘에 이 목사의 기도로 큰 비가 내렸다는 소식이 들린다. 다니엘 로젠 목사(크리스털 포럼)는 "성회 다음날인 8일 뉴스를 통해 북쪽과 이스라엘 중앙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

라엘에서 9월에는 비가 온 적이 없다. 성회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가던 중 갑자기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이재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이다."라고 전했다. 강하나 이스라엘 선교사는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인 9월 19일, 전혀 비가 올 때가 아닌데도 기도해 주신 대로 예루살렘에 세 차례 비가 오는 것을 보았다. 수많은 치료 간증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나사렛에서 온

한 성도는 성회시 기도를 받고 안경을 벗었는데 너무 잘 보여 그 길로 안경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아이가 기도받은 뒤에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성회를 통해 교회들도 부흥을 이루고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한편, 세계 곳곳에서도 간증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영국에서 AIDS로 인해 지팡이 없이 잘 걷지 못하던 플로랑스 성도는 성회 참석

후, 출국할 때에는 지팡이 없이 걸으며 기뻐서 춤까지 추었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온 싸마다 발라 케이블 방송 사장은 골다공증이 치료되었으며, 벨기에에서는 잘 걸을 수 없던 토니 성도가 걷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A.E.G.A 유럽 지부 총회장 반 홀론 목사는 성회를 시청하며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심장질환도 기도받은 뒤 호전되었다며 감사해 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치료받은 이들이 나이로비 만민성결

교회를 찾아와 간증하는가 하면, 일본의 시미즈 지혜 권사는 오래된 손가락, 발가락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다. 레바논의 아난 카스타니 안 목사는 메시지가 매우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많은 사람이 화개하고 문제 해결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놀라워했다. 이 외에도 러시아, 인도, 미국, 콩고민주공화국, 네팔, 카자흐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간증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 열려

10월 11일, 본당에서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가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오전 10시, 11시 30분에 있는 1, 2부 대예배 때 '섭리(삼 37)라는 제목으로 27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동안의 열매를 소개한다.

오후 3시, 저녁예배 때에는 '권능'

(시 37)이라는 설교 후에, '천국'을 주제로 축하행사가 펼쳐진다.

신동초, 이수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축하 공연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연회를 웅장하고 아름답게 연출함으로 모든 성도를 그날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천국의 소망을 더하게 한다.

전야 행사는 10월 9일 9시 40분, 야외주차장에서 <만민의 세계선교사역>을 주제로 최첨단 영상 시스템인 판도라 장비와 6대의 멀티프로젝터와 컬러 레이저빔을 활용해 2성전 벽면을 스크린 삼아 성결의 복음과 불같은 권능의 역사를 표현했다. 금요일야예배 2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우리들의 간증>을 상영했다.

해외 선교의 주역, GCN 개국 4주년 맞아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인 GCN 개국 4주년 축하 행사가 10월 9일 금요일야예배 2부 시간에 본당에서 열렸다. 한동식, 조승희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는 세계기독교방송인협회(NRB) 회장인 프랭크 뢰이트 박사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비롯해 세계 기독교 언론인들의 축하 메시지 퍼

레이드와 예능위원회 소속 팀들의 화려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섭리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7)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섭리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는 질서와 은혜를 말합니다. 전지전능하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정확히 이루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이루어진 일에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주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거한 영계의 법칙에 따라 정확히 운행되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심도, 마지막 때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려는 섭리는 무엇 일까요?

첫째, 많은 영혼에게 성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 하셨습니다. 아모스 8:11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말씀이 홍수와 같이 범람하지만 하나님의 참뜻을 전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사라지고, 문자적이고 지식적인 말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결 복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마음과 참뜻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는 길을 제시해 주지요. 게다가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비결을 알려 줍니다. 성경상의 무수한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는 이 성결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결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이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이고 육적이던 신앙이 영적인 참된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와 생명을 낳는 성결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둘째, 놀라운 권능을 베푸셔서 믿는 자의 수를 크게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베풀어질 때 많은 영혼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참믿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요 20:29).

그런데 막상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내 믿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단지 ‘들어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 4:48) 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20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지요.

하나님 말씀이 참임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는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야 사람들이 참임을 믿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자녀를 얻기 위해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이 나타났지요.

단에서만 기도했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치료되고, 날씨와 기후까지 조절되었습니다. 각종 무지개와 영의 공간을 통해 나온 잠자리의 출현 등 영의 세계를 손에 만진 바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죄악으로 물든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셋째, 세상 끝날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그 섭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어떻게 섭리해 놓으셨을까요?

인간 경작은 참자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계획하신 하나의 작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할 도구를 선택하셨습니다. 즉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 버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오직 아멘과 예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또 성경상의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펼치고 불같은 기도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포하는 교회이지요.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를 이루고 마지막 때에 대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입니다.

아모스 3:7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한 비전을 밝히 보이시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피 값으로 사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10월 11일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주일 대예배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kr) ‘설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민중앙소식 지령 400호 맞다 <만민뉴스>로 제호 변경, 주간으로 힘찬 출발

격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만민중앙소식>이 400호를 맞았다.

<만민중앙소식>은 지난 1987년 5월 17일, 교회내부 소식지 월간으로 창간하여, 1989년에 문공부에 정식 정기간행물 등록을 마치고 2년 남짓 월간으로 발행되었고, 다시 교세의 폭발적인 확장에 힘입어 1991년부터 격주간 신문으로 발행하여 왔다.

<만민중앙소식>은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는 1994년 10월 9일자로 지령 100호 특집호 8면을 발행하면서 본격적인 교회 기관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창간 당시 발행 부수가 매달 4000부 정도였는데 현재는 100만부 이상 발행하면서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회 소식지를 뛰어넘어 해외 성도들을 위한 세계적인 선교지로 성장하였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 신문 발간은 물론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타밀어, 불어, 일어, 인나어, 포르투갈어 등 13개 국어 해외판을 발행하여 해외 선교 사역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만민중앙소식>은 지령 400호를 맞아 변신하여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 ‘한국의 만민중앙교회에서 세계의 만민중앙교회로 자리매김한’ 교회의 품격에 맞는 변화이다. 우선 제호를 <만민뉴스>로, 제자를 현대적인 그래픽체로 변경한다. 또한 발행간격을 격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한다.

이는 폭발적인 성도의 증가로 더 많은 뉴스의 공급이 요청되고 있고, 늘어나는 해외 선교 사역으로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창간호 신문



400호 신문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1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e-mail manminnews@hotmail.com
홈페이지 www.manmin.or.kr

발행인 이재록
인쇄인 유정열
편집인 빈금선

교회 오시는 길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팀 (02)818-7391-5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5536, 5615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결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성결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찬양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믿음을 더 깊게 해 주는 만민의 책들

16개 국어로 출판된 세계인의 필독서 <십자가의 도>



신앙생활의 의문점에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며 참믿음을 얻는 데 영적 토양이 되는 이 책은 '선악과를 두신 이유',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등 구원의 도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만 올바르게 알아도 인간 경작의 섭리에 대해 많은 것을 깨우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비밀 가운데 예비하신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 사랑과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믿음의 단계별 지침서 <믿음의 분량>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구원의 확신이 없고 어느 정도 믿음을 소유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조차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분량(롬 12:3)과 천국을 다섯 단계로 구분해 설명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천국의 비밀과 지옥의 참상 <천국>

(상)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곳 <하>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곳 <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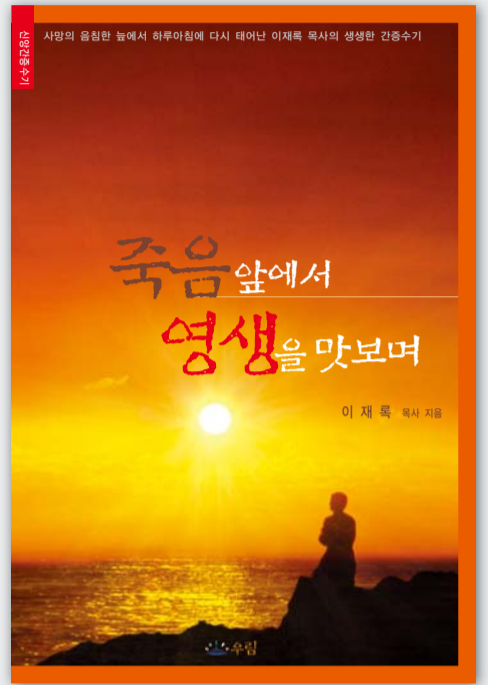
이재록 목사 첫 간증 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간증 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는 영어, 일어, 중국어(간체, 번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15개 국어로 출판된 스테디셀러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 7년간의 병고로 '죽는 것이 효도'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질병과 가난 속에 산 그였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질병을 치료받은 뒤에는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성결 복음을 전하는 권능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같이 연단해 그릇을 갖추게 하시고, 무수한 기도 와 금식을 통해 권능을 더해 주셨을 뿐

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 권능의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된 이 책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책자로 읽혀지고 있다. 인생의 어려움으로 자살하려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수감 중에 책을 읽고 주님을 영접해 목회자가 되는가 하면, 책을 읽는 중에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공해병, 우울증 등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건강한 삶을 사는 등 많은 간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며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나 막연히 사후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 해도 자세히 알지 못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므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천국> 책은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에 대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들어가는 천국의 각 처소와 상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고 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과 생명 다해 충성한 사람이 천국에서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닦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했느냐에 따라 천국의 처소와 영광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지옥> 책에서는 지옥의 참혹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요한복음 강해 <주님의 자취>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추어 두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만이 인류 구원의 길이기 온갖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깨닫는다면 절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탄생부터 고난,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다.

이 책은 이재록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펴낸 것으로, 영원의 시간을 거슬러 태초의 비밀과 예수님의 근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섭리가 펼쳐져 있다.

마지막 때 숨겨진 하나님 사랑과 비밀 <깨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참으로 오랜 세월 세계 각지에 흩어져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 언어를 고수하며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공화국 탄생, 약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립은 마지막 때의 징조이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다. 유대 민족의 메시아에 대한 오랜 갈망과 끊임없이 고개드는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책은 하나님 선민인 이스라엘을 깨우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다.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권능 <희한한 능>

예수님이 성경상의 여러 기사와 표적을 베푼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오직 그 사랑 안에서 구세주임을 믿고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써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가 하면 죽은 자가 살아



났으며,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질병이 치료되고 악귀가 나가는 기적이 생겨났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이 기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요 14:12).

20개국 70명의 놀랍고 흥미진진한 일화를 통해 참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 세대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나를 찾아가는 신비로운 이야기 <영혼육>

사람의 근본을 깨우쳐 주며 자신을 발견케 하는 이 책은 사람의 구성 요소인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영적 이해를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며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얻



게 한다.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는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므로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과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지름길로 안내한다.

최근 7월 초 발간한 이 책은 국내 최대서점인 교보문고에서 판매 첫주부터 종교부문 종합 베스트셀러였으며, 특별히 지난 9월 첫 주부터 3주에 걸쳐 종교부문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했다.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 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깨어라 이스라엘

777

일간의 대장정 비화 祕話

복음이 시작된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

이재록 목사는 2007년 7월 23일 서울을 출발,
이스라엘 선교 대장정을 시작하여 마침내
지난 2009년 9월 6-7일 이스라엘 연합성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실로 777일간의 대장정이
결실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전반기 1-6차 선교

이재록 목사는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이
스라엘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기까지 열두
차례에 걸쳐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였다.

2007.7.23. 서울 출발

“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앞으
로 3년간, 이스라엘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이번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며, 하나님
께서는 첫 시작은 ‘방문’으로 하라 하셨지
요. 이는 이스라엘의 사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왔던 성회들과는 다른 개
념의 사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성회들은 한 번의 큰 성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사역
은 점진적인 복음전파를 통해 결국에는 정
통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합니다.”

2007.7.24. 갈릴리 호수 주변

“이스라엘에 도착한 저희 일행은 예수님
의 사역의 주된 무대가 되었던 갈릴리 호
수 주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저는 목사님
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의 이스라엘의 사역
에 대비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느
꼈습니다. 이미 저의 설교와 권능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위성이 138개의 교회들과 가
정교회들에 설치되어 있었지요. 이스라엘에
는 약 3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교회가 이미 위성을 통해 저
의 설교와 권능에 대해 보고 있었던 것입
니다. 사실 작년 뉴욕 연합대성회 당시 위
성 안테나 설치를 위해 지원을 요청 받았
을 때, 유적인 상황으로는 그것이 결코 쉬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시니 저는 생각 동원
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지원을 약
속하고 지원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귀한
열매로 맺혀진 것입니다.”

2007.7.25. 나사렛 첫 집회

“이스라엘에 도착한 다음날에는 나사렛
지교회에서 수요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정확히 만으로 25년 전, 본교회가 개척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년 전에 저
에게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서, 그 시작이 바로 본교회가 개척한 날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날에



나사렛 지교회에서 설교 후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재록 목사

맞추어 이스라엘 사역이 시작될 것을 말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께서 자라신 곳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시던 곳으로서 장
차 있을 3년간의 공생애를 위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말씀을 묵상하시던 곳입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땅과 진액으로 기
도하신 예수님의 자취가 곳곳에 배어 있는
참으로 의미있는 곳이지요.”

2007.7.28. 하이파 첫 집회

“저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증거한 후
에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 주었지요. 그런
데 치료받고 첫 번째로 간증한 분이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얼마 전, 가슴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며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
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고 나서 팔
의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
었지요. 계속해서 치료받은 간증자들이 이
어졌습니다.”

2007.10.10. 나사렛 두 번째 집회

“수요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가
득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아랍계 목회자들과
성도 여러 명이 소문을 듣고 참석했지요.
보조 의자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
니다. 이곳은 두 번째 방문이기 때문에 ‘믿
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2007.10.12. 아쉬도트 첫 집회

“이스라엘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
터 안식일이 시작되지요. 대부분의 교회들
이 토요일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
는데 이날 방문한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주
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아쉬도트
(아소도)는 사도행전 8:40에 기록된 대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한 곳이기도 하
지요. 인구의 40% 정도가 정통 유대인으로
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생활하기가 쉽
지 않은 곳입니다. 아쉬도트 교회의 목사
님은 1차 방문 때 저를 만난 후 제자로 삼
아달라던 분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팡이
를 짚고 있는 유대인 한 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키퍼’
를 머리에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니 지팡이를 버리고 잘 걷기 시
작했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았고 유대인
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007.10.15. 베들레헴 목회자 모임

“이스라엘 2차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인
목회자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모인 분
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에 대해 설명했고,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
한 협력을 요청했지요. 바로 이 모임을 통
해 다음번 이스라엘 방문의 길이 보이게 시



작했으며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의미 있
는 시간이었습니다.”



3차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베들레헴 목회자 모임

2007.12.24-25.

베들레헴 성탄 예배

“3차 이스라엘 선교는 좀 더 특별한 의
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
이하여 이 땅은 물론이고 영의 세계에서
다시 한 번 모든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
수 그리스도가 선
포되는 커다란 영
적인 의미를 가지
는 사건이었지요.
그러니 원수 마귀
사단이 얼마나 싫
어하겠습니까? 하
나님과 주님의 이
름이 다시 한 번 온 우주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008.2.24. 예루살렘 첫 집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요. 유
대교의 핵심 지역이며 가장 많은 수의 정통
유대인이 사는 곳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의 가장 중심지역에서 집회를 열게 된 것입
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와 치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지역에서 인도한



3년간 12차에 걸친 이스라엘 선교 여행지

나사렛

골라

루살렘

베렐

료의 사역에 큰 관심을 가진 분이였지요. 그로 인해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큰 열매를 맺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더욱 특별했던 것은 장차 이스라엘 선교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이를 사역 때문이었습니니다.”

2008.4.12. 아쉬켈론 첫 집회

“이곳은 지금도 가끔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자’로부터 로켓 공격을 받는 곳입니다. 집회가 있기 한 주 전에도 로켓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 측의 보복 공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늘 위험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곳이었지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했고, 저의 방문을 사모함으로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해서 계단까지 앉아야 했지요. 많은 환자가 치료받아 간증했는데, 86세나 되는 여성분이 보조 기구를 버리고 걸을 수 있게 되어 성도들에게 큰 믿음이 되었지요.”

2008.4.13. 브엘세바 첫 집회

“일요일에는 브엘세바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방문하는 길에 아브라함의 우물터도 직접 볼 수 있었지요. 창세기 21:33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했지요. 이날은 특히 더 많은 치료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 목발을 버리고 걸을 것을 시작으로 87세 여성이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났지요. 도저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16년간이나 허리를 구부리지 못하던 33세 남성도가 치료받고, 88세 남성도는 지팡이를 버리고 걸었으며, 60대 여성이 시력을 회복하여 간증했습니다.”

2008.6.11. 예일랏 극장 집회

“이스라엘 6차 선교의 첫 집회 장소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 예일랏이었습니다. 흥해를 접하고 있고 휴양지로도 유명한 곳인 예일랏에서의 집회는 교회가 아닌 극장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권능이 이전과는 또 달라진 것을 확연히 느끼는 집회였습니다. 통역도 두 번이나 해야 하기 때문에 병명을 자세히 물을 수도 없고 정확한 기도를 해주기도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전체를 위한 환자 기도를 할 때부터 지팡이를 들고 나오는 분이 여럿 있었습니니다.”

후반기 7-12차 선교

이스라엘 기독교계가 힘을 얻게 되자 이제 록 목사는 본격적으로 정통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전력투구하였다.

2008.7.26. 텔아비브 집회

“앞으로는 이처럼 교회들을 돌면서 집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선교의 방향이 새롭게 전환되기 때문이지요. 앞으로는 정통 유대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주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통 유대인을 향한 선교도 계속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본격화 됩니다.”

2008.10.17. 나하리아 집회

“8차 선교부터는 이스라엘 직항노선이 생겨서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는 거의 두 달 간격으로 한 번씩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은 횡수가 더해 갈수록 오히려 더 쉽게 이스라엘을 입국, 출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세가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위층들과도 긴밀히 연결되도록 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만민의 사역을 위한 포석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힘이 되어줄 것이며 이후에도 만민과 연결된 교회들의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도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정확하게 주관하셔서 만나게 하신 것이지요.”

2009.2.16. 아쉬도트 목회자 세미나

“2007년 1차 선교 방문 때만 해도 대부분 목회자들이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만 목회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힘을 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들이 연합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여 실행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그런데 저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 만민과 함께하기를 너무나 사모하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크리스털 포럼이 결성된 것입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분들은 단순한 동역자의 관



아쉬도트 지역에서 개최된 제4차 목회자 세미나



김광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전경

계를 넘어서 가족과 같은 관계로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09.4.20. 나사렛 목회자 세미나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할 때,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차를 세우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암환자 한 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 먼



예루살렘 지역에서 개최된 제3차 목회자 세미나



나사렛 지역에서 개최된 제2차 목회자 세미나

곳에서 택시를 타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잠시 후 그분이 도착했고 저는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기도를 받은 분이 암을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를 신뢰하며 참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와 협력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저를 더 신뢰하고 믿음이 커질 수 있는 또 한 가지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에게 기도를 받은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9.6.22. 예루살렘 목회자 세미나

“이번 3차 목회자 세미나에는 많은 주의 종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였습니다. 영어, 불어, 히브리어, 러시아어 등 네 개 언어로 통역을 해야 했지요.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분이 난해구절 풀이를 들으면서 영적인 귀가 열리

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의 목회자 세미나가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2009.9.6-7. 이스라엘 연합성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땅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힘든 곳이며 최후에 복음이 들어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기독교계는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이스라엘 선교를 통해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했고 또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으며 만민의 이름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7년 환난 동안 이스라엘의 기독교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참으로 큼니다.”

(편집자 주 : 이상의 내용은 이재록 목사가 2007년 8월 5일부터 2009년 9월 20일까지 주일 예배 설교시간에 행한 ‘이스라엘 선교보고’를 직접 채록한 것입니다)



2009 이스라엘 연합성회는 33개 방송사에서 220여 개국에 8개 국어로 방송되었다(CC)



“시련 통해 믿음 성장하고

창립 성장기
1982.10.~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

기사 표적넘쳐, 개척 9년 만에
1만 성도 돌파...시련 뒤에 감춰진
하나님 섭리

온갖 질병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 이 재록. 그 절망의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 이재록 전도사는



개척예배(1982.7.25.)

햇살이 뜨겁게 내리 쬐던 1982년 7월 25일, 어린아이들 포함한 성도 13명과 함께 개척예배를 드린다. “네 시작한 미약

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는 말씀처럼 이것이 만민중앙교회의 출발이다.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한 그는 신학생 시절, 밥 먹듯이 금식하였다. 영혼 구원을 위해 배고픔도 마다하지 않고 성경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런 가운데 중풍, 암, 관절염, 심장병, 임파선염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는 물론 각종 교회 행사시 비가 내릴 때면 기도하여 비를 멈추는 등 기사와 표적이 넘쳐났다.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전국 각처에서 환자들이 몰려왔다. 성전 안은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초만원이 이루었다. 오곡이 무르익고 첫서리가 내리던 1982년

10월 10일, 약 100여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창립예배를 드렸다.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불같이 기도하니 부흥에 부흥을 더하여 1987년 1월에는



창립예배(1982.10.10.)

3천 명, 1991년 3월에는 1만 명으로 늘어났다. 성전을 세 차례나 이전해야 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성도들을 수용하기에는 늘 비좁을 수밖에 없었다.

만민중앙교회는 초기부터 책자·신문·방송을 통한 선교도 활발히 펴나갔다. 1987년 4월에는 이재록 목사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발간하였고, 5월에는 성도들의 간증과 교회를 알리기 위해 〈만민중앙소식〉을 창간하였다. 또한 기독교방송국에서는 간증을 극화 방송하였고, 8월에는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이재록 목사가 직접 출연하여 간증하는 등 이후 국내 부흥성회 및 국내외 방송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것이 널리 알려지자 교과를 초월하여 만민중앙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배우고자 많은 목회자가 찾아왔다.

초대교회 같은 부흥을 더하며 하나님 축복이 넘쳐나던 1989년, 교회는 한 차례 어려움에 직면한다. 근거 없는 모함으로 목사 파직과 교회 제명이라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 1991년 7월,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회 창립 10년 만에 등록교인 1만 7천 명의 대교회로 성장했다. 창립 10주년 기념 야외행사(1992.10.11.)

제1도약기
1991.10.~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단 설립 후
'92 세계성령화대성회를 비롯,
활발한 국내외 선교활동

예성(연합)교단의 총회장이 된 이 목사는 더욱 활발한 교계 활동을 펼친다.

1991년 10월, 교회적으로는 만민중앙소식 격주 발행을 비롯하여 기독교 세계부흥 선교협의회 상임회장,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 희년 대성회 실무대회장 등을 맡아 굵직한 교계 행사에서 민족복음화의 임무를 감당한다. 이러한 목회 사역을 높이 평가받아 1993년에는 미국 크리스천 월드지에서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하였고, 이후 명예신학박사,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7월, 미국 워싱턴을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해외 성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와 ‘만민중앙교회 부흥의 비결’ 등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권능의 역사도 차고 넘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1994년 말에는 등록교인 3만 명을 돌파했고, 거듭되는 부흥으로 1996년 6월 구로구 구로동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였다. 매년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와 주의 종 교육을 실시해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 못지않게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 성장에도 힘썼다.

‘96 하와이 한인교회 연합성회 및 교역자 세미나, ‘96 아르헨티나 한인 축복 대성회 및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96 일본 신슈지역 연합대성회, ‘97 워싱턴 대전도 대회 및 한미 연합대성회, ‘97 제2회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 및 부흥성회’ 등의 해외 성회를 통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나타나게 되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교회적인 시험은 모 방송의 왜곡 편파보도로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이 연단을 통해 성도들은 더욱 기도하게 되었고 오직 선을 좇아 승리해 나갔다. 그리고 이후에 펼쳐진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통해 모든 것이 축복의 연단임이 증명되었다.

2000년 1월 1일, 「만민 TV」가 태동하여 방송 선교가 준비되고, 3월에는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전남 무안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변하는 표적이 나타났다. 이 무안 단물은 미국 FDA(식품의약품) 검사 결과 뛰어난 음용수로 나왔으며 이를 통해 치료

만민중앙교회 창립

27

주년

스무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13명이 참석하여 개척 예배를 올린 지 27년 만에 만민교회는 수십만, 수백만 명을 모아 복음을 전하는 해외성회를 열고 전 세계 9,000여 개의 지교회를 가진 초대형 교단으로 성장하였다. 만민 27년의 역사는 전 세계 종교계가 찬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였다.

“권능으로 복음 전파하다”



'92 세계성령화대성회(1992.8.16.) 때 성경봉독을 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이날 신현균 목사의 설교, 조용기 목사의 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 교회 닷시 오케스트라, 성가대, 400여 명의 봉사 요원이 각 분야를 담당했다.

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음성전화사서함이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화상예배나 사진기도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그해 7월, 세계적인 뉴스 전문 채널 CNN에 보도된 '2000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세계선교시대가 도래한다.

제 2 도약기 2000.10. ~ 멈추지않는 성령의역사

파키스탄, 인도, 러시아, 미국 등 12번의 해외 대형 집회 인도, 세계적 부흥강사 자리매김. 복음의 근원지 이스라엘에 성령 복음을 외치다

2000년 10월,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에 성령 복음이 울려 퍼지고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동 선교의 문이 열렸다.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운집한 인도 연합대성회(2002.10.10-13, 마리나 해변)

이후 이스라엘까지 회귀되도록 친히 인도하셨다. AIDS 등 수많은 질병이 치료된 '2001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전파된 뉴욕 연합대성회(2006.7.27-29, 메디슨 스퀘어 가든)

케냐 연합대성회, 국민의 90% 이상이 가톨릭을 믿는 필리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2001 필리핀 연합대성회, 중남미에 성령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2002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세계 최대 힌두교 국가에서 연인원 3백

만 명 이상 참석한 '2002 인도 연합대성회를 통해 무수한 영혼이 개종하며 치료받았다.

'2003 러시아 연합대성회는 위성방송을 통해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2004 독일 연합대성회를 통해서는 성령의 복음이 유럽 전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2004 페루 연합대성회는 현지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 언론계, 교계의 지원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06 콩고 연합대성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연인원 7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했으며 성경상의 기적이 무수히 나타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미국 뉴욕의 명소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2006 뉴욕 연합대성회는 권능의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등 경천동지의 권능이 데이스타, TBN 러시아, 코스모비전, GCN을 통해 전 세계 200

여 개 나라에 전파되었다.

2007년 7월부터는 이스라엘 선교사역이 시작되었다. 3년간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최남단 에일랏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복음을 전하며 권능의 역사를 베풀었다.

마침내 2009년 9월, 이 목사는 복음의 근원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에 대해 확실히 증거했다. 이어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자 무수한 영혼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돌렸다. 이 성회는 AFP, 로이터 등 세계 유수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취재 보도하였고, 엔라세, TBN 러시아, 미국 데이스타 등 전 세계 33개 방송사를 통해 약 220여 개국에 송출되었다. 이것은 온 성도가 함께 이룬 피땀 어린 기도의 결실이었다.

제 3 도약기 2009.10. ~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세계선교를 향한 새로운 도약
가나안성전, 그리고 대성전

지난 27년 동안, 눈으로 증거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현세대에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증한 만민중앙교회의 선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성령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 만민중앙교회의 다음 행보는 어디일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생활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연단을 통해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한 성도들은 이제 가나안 성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가나안 성전은 이름처럼 만민 성도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는 곳이고, 쫓과 쫓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 세계 성도들이 지혜와 힘을 합해 대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만방에 알릴 것이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27년간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빛진 나,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

배철효 장로 (장로회 부회장, 남선교회 총연합회 부회장)

결혼한 후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저희 부부는 저의 방탕한 생활과 잦은 사업실패로 인해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1982년 8월 아내의 전도로 우리 교회 출석 후 일 년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늦은 밤에 금요일야예배에 가겠다는 아내의 간청에 못이겨 교회에 보내놓고 나니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내 저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고, 도착해 보니 20여 평 남짓한 성전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계단까지 많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날, 하나님께서는 영결결에 교회를 간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통회자복 하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토록 즐겨하던 술 담배를 끊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노력했습니다. 가정도 화목해지고 물질의 축복도 해마다 불어났지요.

1987년도가 되자 기관장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기관을 이끄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기관 식구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자 하니 기관이 부흥해 부흥 우수상도 타게 되었지요. 이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어찌하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섬길까?' 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힘쓰고 있지요. 이는 개척 때나 지금이나 늘 아낀 소자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목자의 섬김과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서 분이 되어주시는 목자를 보며 주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저는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한 섬김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아는 저는 주님의 사랑에 빛진 자로서 더욱 낮아지고 섬기길 원합니다.



제 삶에 은혜의 열매로



이정님 권사 (권사회 연합회 부회장, 5여선교회 연합회 부회장)

"언니! 금요일야예배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 언니도 와 보세요"

1982년 11월, 딸과 함께 '구경이나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금요일야예배 때 이 재록 전도사님의 기도로 나타나는 치료 역사를 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역장, 조장, 지역장으로 사명을 감당한 후 여선교회 선교회 회장, 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영혼을 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를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올해에는 5여선교회 연합회 부회장으로서 선교회 일꾼들과 함께 하루 5-7가정 심방을

하고 있지요. 교회 창립행사, 추수감사절,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등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때로는 새벽시장 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 일은 내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지요. 제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명은 성례부입니다.

교회 등록 3년쯤 되어 시작한 성례부 일을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기 전과 성찬식 전에 꼭 당회장이 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준비합니다.

포도주는 가을에 달콤하게 잘 익은 포도를 구입하여 한 알 한 알 따서 깨끗한 수건

으로 닦은 후 정성껏 담급니다. 성찬식 한 주 전에는 성례부원들과 함께 합심기도로 준비합니다.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눈물 흘리며 주님 사랑을 느끼는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진한 감동이 밀려오지요. 성례부원 모두가 이런 감동을 느끼며 포도주 담그는 과정 하나하나를 기도하며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합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주렁주렁 열매로 맺히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전하는 관능의 종이 되고자



안성현 목사 (3세대 31교구장, 임마누엘성가대 지휘)

모태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하나님을 멀리 했고, 여러 번민으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1982년 12월, 제 나이 24세 때 어머니의 인도로 우리 교회를 왔지요. 그 다음해 3월, 금요일야예배 2부 때 환상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지난날의 삶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면서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재록 전도사님께서 "안 선생! 성가대 지휘를 좀 맡아 주실래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가대는 지휘자가 따로 없었지요. 이 분야에 전혀 경험한 적이 없었지만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깨우쳐졌습니다. 1983년 5월 1일, 기계공학도인 제가 우리 교회 첫 성가대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지휘는 제게 놀라운 경험을 맛보게 했습니다. 1985년, 성전 이전 기념 부흥성회 첫날, '엘리아의 하나님' 곡을 할 때였지요. 지휘를 하는데 정말 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곡에 맞추어 제 양팔이 누군가에게 붙들려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응답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아 선지자님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저와 성가대원들은 울면서 그 찬양을 드렸지요.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군복무중 씨름을 하다가 어깨뼈가 탈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뒤 1년에 5, 6번은 탈골되어 고생했지요. 1983년 8월, 교회에서 처음 갖는 대부도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그때도 영락없이 수영을 하다가 어깨뼈

가 탈골되었지요. 한 형제가 뼈를 맞추다가 그만 잘못 맞추어서 다시 빼내고자 했지만 아예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이재록 전도사님이 오셨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받은 뒤 그렇게 안 빠지던 어깨 뼈가 '쑹' 하고 쉽게 빠져 뼈는 정확하게 맞추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31교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구(경기도 부천시)의 사랑은 교회와 먼 거리이지만 교구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므로 가정복음화를 많이 이뤘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개척 때 부르시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관능의 역사를 체험케 하고 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남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동 275-77 ☎070-8223-491-4, 010-4575-4194
- 서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09번지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곡민성결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7가 104-9 ☎0533366-4717, 010-2018-8410
- 새마을민성결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민성결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민성결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0-8888-0727
- 새마을민성결교회 광주광역시 사구 차평동 181 ☎0623372-1002, 011-601-1070
- 동광민성결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민성결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6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산민성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0-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민성결교회 강원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민성결교회 경기도 평택시 옥곡동 488 삼익 2차 11동 704호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성결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84-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민성결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6-6 ☎041546-1537, 011-701-0244
- 사령민성결교회 충남 개령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성결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마을민성결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6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민성결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화원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성결교회 경남 밀양시 내포동 6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문민성결교회 경남 진주시 사천동 산안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8-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민성결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학삼리 985-1 ☎055648-9107, 010-5214-8891
- 경주민성결교회 경북 경주시 동안동 82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99-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성결교회 경북 구미시 외대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성결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천장리 산63 ☎061452-7443, 010-3153-1723
- 전주민성결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9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성결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동 200-3 ☎063853-0675, 010-7777-7027
- 춘천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민성결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성결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민성결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민성결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307-5 ☎0641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3동 88-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강원도 안산시 월동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포지성전 인천시 서구 미전동 688-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5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강원도 고성군 일산동구 백석동 1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강원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49-5 ☎031202-8480, 010-2213-2073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8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강원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강원도 이천시 중리동 456-4 ☎0318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강원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65-1 ☎031840-2306, 019-251-3149